



불서읽기 캠페인

내 인생의 불서 한 권

틈

오소 라즈니쉬 지음 | 나혜목 옮김 | 큰나무 펴냄

우리는 지금 어느 시각에서 있는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3D로 복원한 혜초 스님의 인도여행 모습.



혜초 1, 2

김택환 지음 | 민음사 펴냄 | 각권 1만원

혜초와 고선지 만남, 삶과 죽음 너머의 행복찾기 치밀한 구도와 애달픈 문장 독자 몰입시키는 힘

‘저’는 대유사와 파밀, 나아가 이 세상 전부의 평화를 원합니다. 파밀고원 너머 회화의 삶이 이 잡글에 소상하게 담겼습니다. 우리네 삶이 아름다우면 그네들 삶도 아름답고, 우리네 삶이 비루하면 그네들 삶도 비루하고, 우리네 삶이 슬프면 그네들 삶도 슬프고, 우리네 삶이 영약하면 그네들 삶도 영약하고, 우리네 삶이 힘겨우면 그네들 삶도 힘겨웁니다. 부디 이 글을 두루 살피고 파밀고원 동편과 서편에 사는 이들이 상상하는 방도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왕오천축국전〉을 쓴 맨발의 구도자 혜초(704~787), 고구려 유민으로 당나라의 장수가 되어 실크로드의 영웅이 된 고선지(?~755). 두 사람이 거친 모래바람을 헤쳐 대유사(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길 없는 길’을 찾아 무한한 역경과 마주 한다.

황량한 모래바람 같은 역사 속, 그 아득한 길에서 혜초와 고선지가 만났다. 신라의 구도승과 신라에 의해 멸망된 고구려의 유민이라는 현격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삶과 죽음의 길을 함께 한다. ‘부디 이 글을 두루 살피고 파밀고원 동편과 서편에 사는 이들이 상상하는 방도를 찾으셨으면 합니다’라는 혜초의 간청이 있기까지.

김택환의 소설 〈혜초〉는 ‘동편과 서편의 상생’을 염원함으로써 역사속의 혜초를 21세기의 정신적 지도자로 환생시키고 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21세기에 혜초의 여정을 뒤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혜초의 시대 사막과 고원지대의 상황은 한 순간도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고난의 길이었다. 그 길에서 펼쳐지는 풍경은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이 아니고 고난이 고난이 아니고 삶이 삶이 아니고 죽음도 죽음이 아닌, 다만 존재하기에 존재에 최선을 다할 뿐인 절체절명이기도 했던 것이다. 소설 〈혜초〉는 바로 그 긴박함 속에 얽히고 설켜 인간의 욕망과 구도를 향한 열연,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등이 뒤섞이고 풀어지는 과정이다.

혜초와 고선지의 다른 길이 같은 길로 회향되고 서역의 무희(舞姬) 오름과 신라의 장사꾼 김란수의 갈을 수 없는 계산이 같은 계산으로 통섭되고 경교(예수교)의 제자 야곱과 오름의 쌍둥이 동생 내림의 다른 죽음이 같은 공덕으로 정리되는 동안 독자는 막막한 사막에 버려지기도 하고 인간의 숲에 부대끼기도 한다. 그래서 소설이 진행되는 동안 한 순간도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의 치밀한 소설적 구도와 애달픈 문장을 들려주는 이야기에 걸려드는 것이다. 김택환의 소설로 되살아온 혜초를 통해 우리는 우리들 삶의 한 가운데 있는 사막을 만나게 되고 그 사막에서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 소설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혜초〉의 길은 지금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혜초는 맨발로 사막을 걸었고 고선지는 장검 하나로 사막을 누볐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래 없는 사막과 날은 없어도 저마다의 허리에 단단히 채워진 칼을 하루도 버린 적이 있겠는가? 종교는? 세속을 이끌어갈 본연의 목적은 저 멀리 땀겨져 둔 채 세속을 벗어나지 못

하고 세속에 뒤엉켜 교세확장에 목매고, 배척하고, 편파를 조장하고, 구제의 대상조차 망각하는 자화상을 뜨겁게 인식한 적이 있는가? 혜초는 여전히 우리네 삶의 현장을 맨발로 걸으며 사람이 사람답고 짐서가 짐서답고 생명이 생명다운 길을 뚫고 있다. 그 길에서 혜초가 만나는 오늘의 고선지, 오늘의 김란수, 오늘의 오름과 내림이 무수하기에 독자는 책을 놓는 순간 긴 시간 눈을 감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혜초의 시 한 구절을 가슴에 묻을 것이다.

그대는 서쪽 이역이 멀다고 원망하고
나는 동쪽 길이 멀다고 탄식하노라.

〈왕오천축국전〉이라는 명문장이 오늘날까지 동황의 굴에 갇혀 있었더라면 혜초는 지금 어디 있을까? 혜초를 생각하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혜초의 길이 그리워진다. 그의 흔이 담긴 〈왕오천축국전〉은 지금 프랑스 파리의 국립도서관에 있다. 민음사는 소설 〈혜초〉의 홈페이지(hyecho.minumsa.com)를 통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캐릭터는 물론 그의 여정 등을 역사에 근거해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고 〈왕오천축국전〉 반환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삶을 바라보는 지혜 길러준 가르침

〈도덕경〉에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이미 도가 아니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도’란 언어의 매개체로 의사소통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도 없는 별천지의 것이기만 할까. 아무리 시답잖은 언어라도 그것의 세계를 말하기란 그토록 만무하던 말인가. 청개구리 심보에 호기심이 왕성한 나와 같은 중생들은 그럴수록 더욱 알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한때는 도인이라고 소문난 지리산의 한 스님을 찾아가 적도 있었다. 스님 또한 일언지하로 하신 말씀이 “도는 말로 표현될 수 없다”였다.

오소 라즈니쉬는 부지런히 말한다. 삶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고, 그 안에 포함된 시시콜콜한 문제들, 이를테면 사랑, 근심, 욕망, 성격, 인간의 부처됨과 동물됨의 내면, 심지어 색사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한다. 기성의 종교와 성직자, 철학

그의 저서들 중에 나는 〈틈〉이라는 책을 유독 좋아한다. 짤짤이 읽기에도 좋지만, 결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책이다. 내용 중에 각별히 와 닿는 구절이 있어 자주 들여다보게 되는 대목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을 내리기를 주저한다. 그러니 단정하지 말고 들어라. 가만히 들어라. 주의 깊게, 조용히, 활짝 열린 자세로, 수용하라. 그대를 에워싸고 있는 소리를 전체적으로 들어라.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듣는 그대가 있고, 그 가운데 침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을 접한 후로는 의식적이지만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새들의 소리, 바람의 소리, 빗소리, 이웃집 개가 사냥개 짖는 소리, 야채장수아저씨가 배추가 아주 싸다면서

‘소중한 느낌’으로 희망 돋워주는 경전 같은 책 “지혜로운 사람은 결론 내리기를 주저한다”

가, 기존의 지식을 부정하는 이야기들도 열심히 말한다. 물론 그가 도인일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출중한 외모까지 겸비한 미남의 명상가가, 경계의 따짐도 없이 그토록 다양하고 새로운 견해들을 펼친다는 것은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고 감사한 일이다. 그가 전하고자하는 궁극의 메시지를 나는 확장, 열림, 새로움으로 이해한다. 우리는 분명 너무나 좁은 의식의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 세계가 너무나 견고하고 높아 그 밖을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일일테다. 그렇다면 답답 너머의 세계를 아는 자들이 우물 안 개구리들에게 베풀어줄 측은지심의 자비가 있다면 무얼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테지만, 나라면 적어도 “애들은 가” 라고만 이야기하지말고 앓을 테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개구리들의 언어에 맞춰 열심히 울어주지 않을까 싶다. 간혹은 개굴개굴 소리 너머의 메시지를 뉴아체는 이도 있을 테니까.

확성기로 고래고래 지르는 소리도 듣는다. 나를 죽이는 연습이 한참은 멀어 오쇼의 말처럼 놀라운 일들을 체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소리에 집중하다보면 편하다. 나를 알아달라고, 나를 보아달라고, 내 소리를 들어달라고 열심히 소리 소리를 낼 때보다는 적어도 ‘좋다’라는 느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보다는 좀 더 해를 만한 구체적인 실천이고 배움이다.

그래서 〈틈〉은 내게 경전과도 같은 책이 되었다. 사실 만화책이나 연예소설도 경우에 따라서는 경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을 알았나’가 아닌 ‘무엇을 느꼈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함영(전문작가)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속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정	지도	인원	대상
2008년 8월 23일~8월 29일 [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시작 날 - 8월 23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8월 29일 오전 12시
- 참가비: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수행에 관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dhamma53@hanmail.net

생명 에너지를
궁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0년 전통
쌍양의 일과 온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차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민원인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0531985-1135 / 0541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동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미국현지영어연수안내

미국 현지에서 영어연수를 희망하시는 불제자에게서는 미국 전문 영어연수 학원인 “Spider smart” (미국전역 9개학원개설)의 Sugar Land, Texas 소재 “Learning Center” 학원장으로 있는 불자 김영주(미국 MIT, MBA석사)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현지 영어연수에 유익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TEL : 1-281-491-8896, 1-281-253-2798
H.P : 1-832-264-1045
E-mail : Spidersmartyk@yahoo.com

참고사항
위 학원에서 배포한 Teaching Success Cat, Spidersmart year round program, How to teach at Spidersmart, 등 자료를 원하시는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19-367-4307, 019-322-4308

국제 육조정맥선원 여름수련회

국제 육조정맥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두 번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운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인종사, 대원 문제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육조정맥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입니다.

일시 : 2008년 8월 13일(수) ~ 8월 17일(일)
회비 : 80,000원 (농협 100039-51-043731 예금주 : 최주희) 입금하시고 010-8670-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 010-8670-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약도 등 관련정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수련회 당일 광릉내 707번 정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